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정책소개

금년부터 자율관리 공동체 컨설팅 확대 추진 자율관리어업 해외연수 오는 5월부터 추진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까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기본방침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먼저 금년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를 위해 지자체,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협중앙회, 내수면평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예비평가를 완료했으며, 4월부터 시도 지역협의회 등을 통한 본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로 추진한 시설 및 장비가 잘 관리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사업관리 매뉴얼로 제작해 각 지역에 배부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 대폭 확대한 자율관리어업 컨설팅 추진을 위해 8개 권역 20개 팀으로 구성된 컨설턴트를 위촉하고, 4월부터 671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1:1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공동체는 지난해 평가결과 500점 미만 공동체, 참여공동체 및 신규공동체 816개소 중 희망 수요가 있는 671개소이다. 또한 수산자원관리, 각

종 시설 안전관리, 경영관리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금년도 자율관리어업 해외연수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1차 일본, 2차 유럽권, 3차 중화권)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3~4월 중에 참여대상자와 안내 업체 선정을 완료한 후 5월부터 본격적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분	분야	주요 활동내용
전문 컨설팅	자원관리	자원생리·생태, 불법예방 지도, 자원조성, 어업분쟁 조정 등
	안전관리	어선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등
	경영관리	재무, 브랜드·포장지·상표 개발, 특허 등

* 전문컨설팅 신청은 (사)한국수산업협회 자율관리팀(02-589-4604, 4609) 또는 관할지역 컨설턴트에게 문의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2017년 정기총회 개최



3월 29일 열린 연합회 정기총회 모습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회장 김호연)는 3월 29일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연합회 이사 및 대의원단이 참석해 2016년 결산보고 및 2017년 사업계획 등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호연 연합회장은 유임됐다.

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 대대적인 바다 정화활동 펼쳐



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는 3월 6일 관내 30여 공동체 어업인 1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바다 정화활동을 펼쳤다.

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는 3월 6일 통영시 용남면 일원에서 관내 30여 공동체 어업인 170여명을 비롯, 통영시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안가 및 바다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바다정화 행사에는 선박 2척

등을 동원, 폐부이 35망(5톤), 기타 쓰레기 200자루(4톤)을 수거해 통영시청을 통해 처리했다. 통영시연합회는 앞으로 대대적인 해안 청소작업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깨끗한 바다를 가꾸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신임 사령탑 신현석 어업자원정책관-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

자율관리어업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어업자원정책관에 신현석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실무책임자인 수산자원정책과장에 조일환 주중국대사관 해양수산관이 최근 부임했다.



신현석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

신현석 정책관(55)은 부경대학교 어업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북해도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원양산업과장, 어촌양식정책과장을 거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역임했다.

조일환 과장(46)은 부경대학교 양식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거쳤다. 1997년 해양수산사무관에 임용된 이후 장관비서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주중국대사관 해양수산관을 거쳐 금년 3월부터 수산자원정책과장을 맡았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 3.0

“내가 지켜줄게, 우리 바다야”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넓은 바다라도 막 쓰면 안 돼요.
어업인 스스로 바다를 청소하고 자원을 아끼는 것이 자율관리어업의 첫걸음입니다.

넓은 바다라서 혼자선 안 돼요.
해양수산부가 확산운동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넓은 바다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우리 모두가 바다를 아끼면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꿈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 어장환경개선, 불법어업 방지를 실천하는데 자율관리어업이 있습니다.

www.jayul.go.kr

자율관리어업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업협회 및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함께합니다.

자율관리어업 창원시연합회장 이·취임식



3월 21일 열린 자율관리어업 창원시연합회장 이·취임식 모습.



김산
창원시연합회 신임회장

자율관리어업 창원시연합회는 3월 21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사무소에서 제3대 및 제4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창원시 김

충관 제2부시장을 비롯, 유관기관 단체장 및 자율관리공동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한 김산 회장은 동읍내수면공동체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임하는 최윤덕 회장과 함께 창원시연합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해 왔다. 자율관리어업 창원시연합회에는 22개 공동체 8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어린 해삼 30만 마리 방류 장고도 자율관리공동체 등 3곳에서 이틀 동안 추진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성낙천)는 수산 자원 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3월 28일과 30일 보령서천태안 등 3개 시군에 어린 해삼 30만 마리를 방류하기로 했다.

이번에 방류하는 해삼 종묘는 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인공 채란 및 수정 과정을 거쳐 10개월 동안 사육관리한 것으로, 무게는 1~7g 안팎이다.

방류 지역은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동 고취를 위해 우수 공동체 3곳을 선정했다. 이 중 장고도와 요포공정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해조류가 풍부한 암반 지역 바다에 해녀들이 직접 들어가 안착시키는 방식으로 방류하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 포획 금지 기간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2017년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3월 31일 부산 벡스코에서, 3,000여 전국 수산인 참가

전국 최대 수산인 축제인 '2017년 제6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3월 31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전국의 3,000여 수산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수산인의 날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인들의 권익신장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다.

3월 27일부터 1주일간 수산인의 날 주간동안 전국 해안도시에서는 수산인의 날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자체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임원단체로 구성된 수산인 날 행사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부산지역 자율관리공동체 확산교육 실시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 공동체 위원장 대상 교육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3월 28일 부산공동어시장 회의실에서 관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위원장,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7년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자율관리어업 컨설팅 추진 방안 및 평가체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실무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3월 28일 관내 공동체 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을 실시했다.

2017년 자율관리 지역별 컨설턴트 위촉 시도별 총 20명 선정 ... 신규 공동체 등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담당 컨설턴트를 새로 위촉하고 3월 30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는 20명의 지역담당 컨설턴트를 비롯, 해수부와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식 직후에는 자율관

리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방안 등 컨설턴트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새로 위촉된 시도별 컨설턴트는 2016년도 자율관리어업 신규 참여공동체와 평가점수 500점 미만 공동체를 대상으로 년 2회 이상 방문 교육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게 된다.

※ 컨설턴트 담당지역 및 나이, 주요 근무경력



■ 김중규
(부산·울산 담당)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수산자원연구소



■ 박형식
(충북 담당)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수산기술연구소



■ 천명길
(인천경기 담당)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장,
경기도청 내수면팀장



■ 임희순
(충남 1팀(보령) 담당)
서산보령어촌지도소,
전북수산기술연구소



■ 주창석
(강원 담당)
환동해출장소 어업지원과,
동해수산사무소,
동해청 수산관리과



■ 이승우
(충남 2팀(태안,서산) 담당)
국립수산진흥원 군산지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남도 수산기술관리소



■ 홍종민
(전북 담당)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장



■ 서광일
(전남 1팀(목포) 담당)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소



■ 박영곤
(전남 2팀(완도) 담당)
국립수산진흥원 해남어촌지도소,
전남 영광군 해양수산과



■ 양광희
(전남 3팀(영광,진도,해남) 담당)
목포, 인천 지방해양수산청,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소



■ 김동철
(전남 4팀(강진,장흥) 담당)
국립수산진흥원 목포지원,
국립수산과학원 목포수산사무소,
전남 수산기술사업소 목포지소



■ 권승배
(전남 5팀 담당)
국립수산진흥원 여수지원,
전남 영광군 수산과장,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고흥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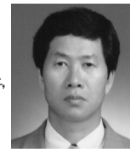
■ 임영호
(전남 6팀(여수 A) 담당)
여수고흥 등 수산사무소장,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



■ 이용한
(전남 7팀(여수 B) 담당)
국립수산진흥원 여수지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과장),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고흥·여수소장



■ 조용현
(경북 1팀(포항) 담당)
경북 영덕군 해양수산과,
경북도 해양수산과,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소



■ 손종철
(경북 2팀(영덕) 담당)
경북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장,
포항어촌지도소,
국립수산진흥원 포항지원



■ 김옥환
(경남 1팀(통영,고성) 담당)
경남 통영시 산업과 수산계,
경남 통영시 수산개발국
(해양개발과, 해양수산과)



■ 서봉규
(경남 2팀(거제) 담당)
국립수산진흥원 통영연구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거제),
경남수산기술사업소(거제)



■ 하태인
(경남 3팀(마산,남해,사천) 담당)
통영수산물기술관리소,
국립수산진흥원 지도과,
통영고성·남해어촌지도소



■ 최영진
(제주 담당)
제주어촌지도소,
제주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주도 수산정책과

특별기고

“어업인 스스로 ‘협력의 제도화’에 나서야”

지난 2009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는 노벨상을 수상하는데 결정적 공로로 인정받은 ‘공유의 비극을 넘어-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라는 저서를 통해 “공유 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화 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다.

이를 통해 그는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용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자원 관리 체계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장치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산자원은 대표적인 공유재

주지하다시피 수산자원은 이의 이용주체라면 누구에게나 소유권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공유재(共有財)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관리 문제는 비단 일개 국가 문제에서 벗

어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지난 2001년 ‘어업인의, 어업인에 의한, 어업인을 위한 정책’을 기치로 자율관리어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을 꺼내들었다. 이는 시행 초기 기존의 어업정책이 철저히 정부 주도아래 시행되는 수직식이었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트린 수평식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업계 내부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어업 17년째에 접어들어 이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참여 공동체만도 1,000개가 넘는 가운데 여기에 참여하는 어업인만도 7만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으니 만큼 양적인 규모만을 놓고 본다면 연근해 어업정책중 이만한 행정수요 집단을 찾기가 결코 쉽



이성희
한국수산신문 편집국장

지 않은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같은 자율관리어업 정책이 양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것과 함께 지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2의 새마을운동 역할을 하며, 참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의식 변화를

유도해낸 것은 무엇보다 큰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과 정부 ‘이분법’ 초월해야

하지만 아직도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공동체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낙제점 수준에 해당하는 500점 미만인 공동체가 700여개소로 전체의 70%에 달하는가 하면 이 가운데 활동이 전혀 없는 곳만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다.

따라서 최근 들어 연근해 어업생산량의 대폭 감소와 맞물려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자원 관리문제와 연계해 보다 새로운 차원의 자율관리어업 정책이 시도되어야 한다. 단지 정부의 육성사업비만을 따먹기 위한 참여가 아니라 진정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대안을 찾아나가기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스트롬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공유재의 비극을 탈피하기 위한 해법으로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서만이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문제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협력의 제도화’는 결국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거니와 정부 정책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해수부, 명태 완전양식 성공 의의와 대량생산을 위한 국회 워크숍 개최



해양수산부는 3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명태 완전양식을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해양수산부는 3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 최초 명태양식 성공 의의와 대량생산을 위한 국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

숍은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과 대량생산 및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와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학계, 연구기관 및 수협, 지자체의 수산자원 관리 및 양식 업무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아래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

원정책관이 그간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성과와 명태 자원회복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정인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명태산업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명태 산업의 중요성과 명태의 식품학적 특성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 명태 관련 식품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 개발을 담당한 변순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박사가 명태 인공종자 생산과 명태 완전양식 기술의 내용을 소개했다.

해수부는 과도한 어획 등으로 동해안에서 사라진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2015년에는 세계에서 2번째로 명태 인공종자생산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세계 최초로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해수부, 자원조성사업 평가체계 마련 토론회

해양수산부는 3월 2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 등 관계분야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 책임자인 해양생태기술연구소의 손민호 박사가

평가체계 방향과 기존 수산자원조성사업 실시 지역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전남대 신승식 교수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경상대 김남길 교수를 좌장으로 현재 수립된 평가체계 방향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해수부, 양양 남대천 어린연어 700만 마리 방류



해양수산부는 윤학배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남대천에서 어린 연어 방류행사를 가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7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어의 모천(母川)’으로 알려져 있는 강원도 양양읍 남대천에서 지역 어업인, 학생들과 함께 어린연어 700만 마리 방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연어는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산란을 위해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켜 5개월간 5cm 크기 정도로 키운 개체들이다.

방류된 어린연어는 앞으로 30~50일 정도 남대천에서 머물면서 7~8cm까지 성장한 후 북해도 수역을 거쳐 베링해와 북태평양으로 이동한다. 그곳에서 3~5년을 지내다가 성어가 돼 산란할 시기를 맞으면 본래 태어난 우리나라 동해안 하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수산자원조사 전문기관, 수산자원연구센터 출범 경남 통영서 개청식... 과학적 자원조사 기반 마련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는 3월 23일 통영소재 경상대 해양과학대학 내에 수산자원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수산자원연구센터' 개청식을 가졌다.

건립기간 3년,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한 수산자원연구센터가 경남 통영에 들어섰다.

국제규격에 맞는 연근해자원의 심층조사분석을 통한 자원관리 방향과 어획할당량, 금어 기간 조정 등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립됐다.

해양수산부는 3월 23일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과학적 자원조사를 전담하게 될 '수산자원연구센터' 개청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실장, 이근현 의원, 김동진 통영시장, 경상대 이상경 총장 등 해양수산 관련 단체장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문을 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수산자원연구센터는 지상3층, 지하1층에 연면적 5,309㎡ 규모의 연구시설로,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내에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및 주변국과 인접한 해역에서의 수산자원조사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센터에는 음향을 사용해 물고기의 크기와 중량을 파악하는 반사강도 측정시스템 등을 갖춘 국내 최대 크기의 과학어탐수조 등 첨단 실험장비가 들어서며, 연근해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과학자원조사선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근해조업상황실도 갖춰져 있다.

또한 물고기의 나이를 일일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이석일륜분석시스템(물고기의 연령과 일령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성숙 여부 판별할 수 있는 생식소 조직분석시스템, 자치어(어린 물고기)의 형태 및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군분석시스템이 갖추어진 전문 실험실도 마련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영훈 이사장 취임



정영훈 이사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3대 이사장에 정영훈(56)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임명돼 3월 17일 취임식을 가졌다.

다. 정영훈 신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완도 수산고와 부산수산대 식품공학과(학사) 및 미국델라웨어대 대학원(석사), 부경대 대학원(박사)을 졸업했다. 정 이사장은 1987년 공직에 입문(기술고시 22회)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을 역임했다.

5월 10일 바다식목일 기념 '대국민 공모전' 접수

해양수산부가 5월 10일 바다식목일을 맞아 연안생태계 회복 중요성과 바다녹화 실현운동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5회 바다식목일 기념 대국민 공모전'을 4월 22일까지 개최한다.

'바다는 내 친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 그림/사용자 제작 동영상(UCC)/수중사진 등 총 3개 부문에 대해 열린다. 응모기간은 4월

22일까지이며, 수중사진의 경우 2015년 1월 1일~2017년 4월 22일까지 촬영한 작품으로 한정한다.

어린이 그림 부문 대상에 해양수산부장관상을 비롯한 최종 수상작 총 62점은 4월 29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이후 5월 7일까지 국제해조류박람회장에 전시할 예정이다.

한국수산회, 제6회 수산인의 날 기념

인터넷수산시장 「피쉬세일(fishdsale)」 할인행사

한국수산회(회장 김영규)는 제6회 수산인의 날을 맞아 인터넷수산시장 '피쉬세일(www.fishdsale.co.kr)'에서 대폭 할인행사를 갖는다.

한국수산회는 수산인의 날 주간인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1주일간 도다리, 주꾸미, 꽃게, 멍게, 해삼, 바지락 등

20여 제철 생물 수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하여 판매한다.

이번 특가행사는 한국수산회와 피쉬세일 입점 어가들이 협력하여 엄선된 수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행사로, 일반 국민들에게 수산인의 날을 홍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체 탐방 / 충남 태안 대야도 자율관리공동체

자율관리어업으로 변모된 섬... 해삼양식 단지 조성으로 제2의 중흥 꿈꿔



문윤모 태안 대야도 공동체 위원장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연결되어 있는 섬 속의 섬 대야도는 193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김양식을 시작한 '부자 섬'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천수만 간척사업으로 물길에 막히자 양식 김에 병이 생기며, 더 이상 김 양식을 하지 못하는 한편 어획량도 갈수록 줄어들어 주민들이 하나 둘 도회지로 떠나면서 내리막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 대야도가 2010년 어촌계원들이 뜻을 모아 자율관리어업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부촌의 꿈'을 키우고 있다. 50가구 75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대야도 공동체는 우선 자원관리를 위해 패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자체적으로 설정한 채포금지 체장(바지락 3cm, 우럭 23cm)에 미달하는 어패류는 재방류하고



대야도 공동체 회원들이 전통독살(돌을 쌓아 고기잡이)을 마련해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있다. 또한 마을어장 공동생산 작업을 실시하고, 품목별로 자체 지정된 1인당 생산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패류어장 4건 30ha에 대해 1년 주기로 어장휴식년제를 도입하는 등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대야도 공동체는 무심코 넘긴 마을어장의 해삼자원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마을어장 20여 ha를 해삼단지로 조성,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10~15만 미씩 해삼종패를 살포해 금년 5월경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

어촌마을 대부분이 그렇듯 대야도마을도 회원 고령화가 심각함에 따라 마을어장을 적극 활용해 돈 되는 마을어장으로 사업형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 2015년부터 대야도 공동체를 이끌며 회원간 화합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문윤모 위원장은 "지금 대야도마을은 하면 된다는 의지로 협동심을 발휘하고 있다"며 해삼삼조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지정 어촌 6차산업화 시범마을로 선정된 태안군 대야도마을이 지난해 5월 24일 김영석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사업시절 준공식을 가졌다.

대야도마을은 2015년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평가에서 우수공동체 타이틀을 거머쥐며 국무총리 표창을 받음으로써 어업인들의 사기가 충천해 있는 만큼 이를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에 윤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다.

2014년 해양수산부 '어촌 6차산업화 시범마을'에 선정되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마련한 어촌특화시설에는 반건조 우럭 소포장 가공시설이 마련돼 또 다른 소득원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